광주 '3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체계적 추진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대상
사업계획 연구 용역·조직신설·위원회 구성 검토

광주시가 광주를 중심으로 전개된 민주화운동인 4·19혁명, 6·10항쟁, 5·18민주화운동을 체계적으로 기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광주시는 10일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용역을 통해 국내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발전전략을 도출해낼 계획이다. 대상은 4·19혁명, 6·10항쟁, 5·18민주화운동 등이다. 용역을 통해 우선 국내외 기념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의미와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황 분석을 토대로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기본방향과 발전전략을 도출하기로 했다.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 교육·홍보 사업, 국내외 연대 사업 등을 모색하고 민주·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내놓는다.

시는 관련 업무를 추진할 조직을 신설하거나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시, 시의회, 민주화운동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위원으로 구성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를 만들어 사업을 심의·자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올 상반기 용역을 마무리하고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역 민주화운동을 토대로 실질적인 민주주의 이행 전략을 만들고,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이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아가 자손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정비사업구역 7곳 찾아
광주시, 현장 목소리 듣는다

광주시가 정비사업구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답하는 '소통행정'에 적극 나선다. 자치구와 합동으로 재개발 구역 중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정비사업구역 7곳을 찾아가 조합, 비대위 등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서구 양3동재개발, 북구 누문재개발, 동구 지원1재개발 구역을 잇따라 방문해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자치구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민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행정에서 소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보듬으며 '광주다움'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말까지 북구 중흥3·임동·우산재개발과 서구 광천재개발 정비구역 주민들과 만남의 장을 가질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이용섭 광주시장, 어기구 상생형지역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

김영록 지사·이용섭 시장 지역민 인기 한 몸에

시·도지사 여론조사 1·2위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용섭 광주시장이 전국 시·도지사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나란히 1, 2위에 오르며 기염을 토하고 있다. 민선 7기 들어 지역 현안들을 하나 둘 해결하며 장관, 국회의원 등의 국정 경험을 토대로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것에 대한 평가라는 분석이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이처럼 지역민의 높은 지지를 받는 것은 사실상 최초다.

이 시장은 2018년 7월 민선 7기 최초 조사에서는 10위였던 순위를 7개월 만에 2위까지 올려놓을만큼 시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이끌어냈다. 김 지사 역시 8개월 동안 지지도 1위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만들어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8일 발표한 '2월 전국 17개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김 지사, 이 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순으로 1~3위를 기록했다. 김 지사의 '지지율(잘한다 긍정평가)'은 지난 1월 대비 1.4%포인트 오른 59.8%를 보여 8개월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대비 3.5%포인트 오른 54.8%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전체 4위에서 2위로 상승했으며 지난 2014년 8월 광역자치단체 평가 조사 이래 광주시장으로는 최고 순위에 올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형 일자리 성공비결은 절실함·비전·추진력"

이용섭 시장 밝혀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 비결은 일자리 창출을 간절히 염원하는 지역사회의 '절실함', 노동존중과 투자환경 조성에 대한 '비전 제시', '단체장의 강한 추진력' 등 3가지라고 밝혔다.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상생형지역일자리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자동차에서 다른 분야로, 광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 문재인정부 일자리 정책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제조업과 고용절벽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른 광주형 일자리의 의미를 공유하고, 전국으로의 확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축사에 이어, 박병규 광주시장 일자리정책특보의 발제, 지명토론자들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지자체 주도의 사회대통합형 노사상생 일자리 모델"이라고 소개하고 "처음에는 광주 청년들의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으나, 이제는 한국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대한민국의 희망이 됐다"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온 국민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뒷받침해 주어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친일문제 처벌 없어 5·18망언 나와"

'포럼 광주의빛' 창립토크쇼 참석 박원순 서울시장

"광주와 국민이 5·18민주화운동, 촛불항쟁 등을 통해 빛나는 성취를 이뤘지만 결국은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포럼 광주의 빛' 창립기념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5·18 망언'과 관련, 망언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또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적극 지원하는 등 호남과의 남다른 인연도 강조했다.

박 시장은 "민주주의 그 자체, 그 본질을 해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고, 광주항쟁을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의 경우 나치의 유태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거나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면서 "한국사회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았지만 친일문제의 해결과 처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광주와의 남다른 인연도 소개했다. 박 시장은 "서울에서 해마다 다양한 5·18민주화운동 기념 행사를 하고, 관련 행사사무실의 임대료도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 "최근 용산역에 홍보 조형물을 조성했고, 조만간 서울 지하철역 등지에도 조형물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면서 "자원봉사자 지원과 입장권 판매 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토크콘서트 도중, '포럼 광주의 빛' 회원 등이 박 시장의 첫 이미지에 대해 '헌신'이라는 키워드를 가장 많이 꼽았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시민 누구에게나 헌신의 마음이 있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정의와 나눔이 다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대학에 들어가 며칠 안 돼 시위를 하다가 유치장에 3개월가량 갇혀 있으면서 죄를 지은 청소년을 많이 만났는데 대부분 너무 착했다"면서 "당시, 이 아이들이 큰문제가 있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회고했다.

박 시장은 "모든 문제는 현장에서 시작되고 현장에서 답이 나오기 마련이며, 현장에서 시민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촛불정신이 시간이 갈수록 퇴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생활 속에서 반영이 돼야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지적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금호타이어 이전부지 대중교통 중심 개발"

광주송정역세권 발전방향 토론회

'광주송정역세권 발전방향 수립 토론회'가 8일 광산구청에서 3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광산구가 주최하고 (사)한국도시설계학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와 주민이 참가해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 부지 활용 및 광주송정역세권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인성 서울시립대 교수가 진행을 맡은 가운데 첫 발제자로 나선 류영국 지오시티(주) 대표이사는 '금호타이어 이전부지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방안'에서 광주송정역세권의 '대중교통지향형(TOD)' 개발을 강조했다.

송정역세권을 복합고밀도 개발을 하되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역세권 외곽지역의 자연생태환경은 보존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선진 역세권 토지활용사례'를 발제한 박태원 광운대 교수는 "역세권 하나 잘 키우면 도시 붐업과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광주의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빛세권·맛세권·멋세권'으로 송정역세권을 꾸며보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윤진보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오늘 임명

이용섭 광주시장이 11일 윤진보 후보자를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에 임명한다.

시는 10일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윤진보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임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11일 시의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돼 정식 처리될 예정이다. 특위는 윤 후보자가 수십년간 공적 업무를 수행했으며 민간 기업 근무 경력도 있어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공사의 재정 건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전남도 재난상황실장, F1 지원과장, 건설방재국장, 목포시 부시장 등을 지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